

어느 전시장 지킴이의 일일

나는¹ 전시장 지킴이다. 나는 전시공간 시청각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있다. ‘전시장 지킴이’라는 이름표 대신 다른 것을 골라 달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정직한 이름은 역시 이것밖에 없다. 출근하면 전시장의 불을 켜고, 영상작품을 재생시킨다. 전시에 따라서 켜야 할 조명은 달라진다. 그 이후로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가끔씩 전시장을 살피고 정돈한다. 일 6시간 근무의 일당 4만 원을 받고 있으니, 나에겐 꽤 만족스러운 일터이다. 날씨가 좋을 때는 사무실 문을 열어놓았다가, 관람객이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문을 닫는다. 닫힌 문은 때론 호기심 많은 관람객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최대한 관람이 자유롭게, 없는 듯 있는 것이 이 전시공간 지킴이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주방으로 사용되었던 사무실은 전시 오프닝 때나 과거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이는 큰 집에 제사가 있을 때, 어른들을 피해 어머니 곁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그 주방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비슷하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얇은 나무문이 전달해주는 바깥소리를 엿듣게 된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전시장의 눈치를 살피며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전시공간에는 언제나 작품을 지키고, 관람객의 동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보통은 흰색 혹은 검은색의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자기 몫으로 주어진 위치에 작은 의자에 앉거나 서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장 구인 사이트에 ‘전시장’이라고 검색해서 일을 찾을 수도 있다. 자격 요건은 20대 남녀, 전시기간 동안 근무 가능한 자(혹은 6개월, 1년 이상), 미술 관련 전공자 우대, 서비스 업종 경험자 우대,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성실하고 밝은 성격. 근무조건 주 5~6일(주말근무 포함), 일 8시간(연장근무 가능). 급여 일 5~6만 원 혹은 면접 시 협의. 최저 시급 수준의 특별한 기술과 큰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단순 단기 아르바이트로 분류된다. 까다롭게 최근 3개월 사진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시급으로 고학력 등의 고급인력을 원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공간에 따라 고용한 지킴이의 모습도 다르다. 채용기준이 뚜렷해서인지 공간의 특징을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 도슨트 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단정하고 젊은 여성 인턴, 외운 것을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어 한 은퇴자 자원봉사자 아저씨, 한쪽 기둥에 놓인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고용된 할머니, 서 있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어 보이는 휴학생. 종종 관람객에게 과도한 감시의 시선과 제재를 하기도 하지만, 화이트 큐브 안에 갇혀 희미하게 서서 흘러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구인광고에서 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극단적인 전시와 판매의 공간인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1개의 가방도 팔리지 않는 지독히도 장사가 안되었던 그 가방매장은 손님이 없어서 쉬울 것이라 했다. 바로 그 이유로 멍하니 번쩍이는 공간에 서 있는 것을 참지 못해 그만두었다.

나는 시청각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전화벨이 자주 울리진 않는다. 기획자의 연락처와 보도자료를 요청하거나 길을 묻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단 한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수화기를 들고 ‘네, 시청각입니다.’라고 말한다. 경상도 사투리를 숨긴 어조로, 여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적어놓은 말을 천천히 쏟아낸다. 부산에 있는 어느 해산물 납품 업체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시청각에 해산물 납품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청각을 자신들의 새로운 ‘거래처’로 만들고 싶다는 요지였다. 설명을 들으며 내가 겨우 생각해낸 답변은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닌데요.”

“아... 그런 곳이 아니군요. 그럼 거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027301010, 아홉 개의 숫자버튼을 그 여자는 어떻게 누르게 되었을까. 여자의 임무는 전국의 새로운 해산물 납품 거래처를 찾는 것으로 짐작된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기엔 실패확률이 너무 높다. 전화번호부를 펼쳐놓고, 거래처가 될 만한 곳을 찾았을 것이다. ‘~각’이란 이름은 중국음식점이나 기와지붕의 한식점으로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에 시청각은 인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시청각임을 밝혔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시작했다. 경쟁 업체의 거래처 목록을 빼내어 전화영업을 시작하려는 신생 업체 직원이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내가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되었냐는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시청각의 전화는 발신자표시기능이 없다. 부산의 그 사무실의 다이얼은 지금도 전국 어딘가 해산물을 사용할 곳을 찾아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우연에 기대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찾는 것이 유통업계에서 흔한 일인지 알 수 없다. 낮선 사람과 통화를 하는 일은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예측 불가능함은 불안을 낳는다. 해산물 업체 직원의 임무가 오직 종일 앉아 낮선 곳에 전화를 거는 것이라면 퇴근 후 그는 꽤 지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꽤 조심스럽고 어설프으므로 새로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걸까, 전화를 거는 대가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내가 만약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다고 했다면, 그 직원에게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해산물 납품을 가장한 보이스포싱²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돈을 입금하면 저렴한

가격에 싱싱하고 푸짐한 해산물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돈을 가로채려고 했었을 수도 있다.

전시장 지킴이는 임시적인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평생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전시장 지킴이의 일상 따위를 기록하려는 사람도 없다. 전시장에서 지킴이를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다. 직업정신이나, 노동의 숭고함 따위와는 거리가 먼, 돈을 벌기 위한 임시적인 일들을 나는 수 없이 거쳐왔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있다. 직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알바생’으로 통칭된다. 아르바이트가 더 이상 임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안정적인 노동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는 세계에서 불안에 떨며 하찮은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지금 시정각에선 <어느 미싱사의 일일>이 상영되고 있다.

1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 검사에서 '나는'이란 단어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을 보았다. "네
일기를 네가 쓰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이라고 쓸 필요가 있겠니?"
선생님의 논리는 당시에는
그렇듯했다. 그 때 이후로 나는
'나의' 화자를 뺏겨 글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나는'으로 가득한
노동일기를 쓰려고 한다.

2 건어물 납치 도시괴담은
2010~2011년에 실제로 유행했다.
이 도시괴담은 건어물 판매를
가장한 장기밀매업자가 건어물을
추천하며 맛을 보게 하거나 냄새를
맡게 하는데 이 때, 건어물에
마취제가 발라져 있어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장기를
떼이고 싶지 않다면 건어물 시식을
피하라고 도시괴담은 경고한다.